광주·전남, 日 수출 규제 맞대응… 대책추진단 설치

제조업 피해 최소화위해 적극 대응
유관기관과 현장실시 통한 맞춤지원
타 국가 통해 수입 대체선 확보키로

광주·전남지역 지방자치단체와 경제 관련 기관, 단체들이 일본 정부의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2차 수출규제로 인한 지역 제조업체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15일 지역 제조업체들은 우려 속에서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와 전남도는 자금지원, 소재·부품 국산화 착수, 수출선 다변화 등의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광주시는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수출규제 대책추진단'을 시 일자리경제실에 설치하고, 종합상황반·금융지원반·수출입지원반 등을 유관기관과 함께 구성해 가동하고 있다.

대책추진단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광주본부세관, 코트라(KOTRA) 광주전남지원단, 한국수출입은행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지역 수출기업 363곳과 수입업체 214곳에 대해 현장 실사를 통한 맞춤형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광주시는 신고센터를 통해 피해를 호소해 온 기업들을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현장 실사를 하고 실제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에 나서고 있다.

지원은 주로 '중소기업 자금 확대 지원', '지방세 등 세금납부 유예', '수출입선 다변화 지원', 마케팅 지원' 등 업체별 실정에 맞게 맞춤형으로 이뤄지고 있다.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지난달 28일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호소해 온 광주지역 기업은 현재까지 2곳에 불과할 만큼 피해는 미미한 수준으로 파악됐다.

해당 업체들은 광주시 신고센터에 일본 거래처에서 주문물량이 줄어들자 자금 압박을 호소해 왔다. 광주시는 이중 1개 업체에 대해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추진 중이다.

전남도는 일본을 상대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 303곳과 수입하는 업체 452곳을 대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전남지역 수입액은 지난해 말 기준 360억달러(42조9768억원)로, 이 가운데 일본 수입 규모는 전체 수입액의 2.5%를 차지하는 9억달러(1조744억2000만원)수준으로 나타났다.

일본산 수입품은 주로 금속·화학공업 분야의 소재와 부품이 52.3%를 차지할 만큼 특정 분야에서만 대일 의존도가 높게 나타났지만 포스코 광양제철과 여수 국가산단 내 LG화학·GS칼텍스 등 철강·화학 기업들은 타 국가를 통한 수입 대체선을 확보해 둔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도는 아직까지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가운데 해당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나가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아울러 이번 일본 수출규제 사태를 계기로 지역 산업계의 대일 의존도가 높은 금속·화학 분야의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해 전남테크노파크와 협업해 '전남 소재·부품산업 육성계획'을 오는 10월 말까지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금속·화학·세라믹·레이저 등 4개 핵심소재 태스크포스(TF)팀에서 과제를 발굴하면, 중장기 발전대책 TF팀에서 과제를 수정·보완해 총괄위원회에서 최종 계획을 승인하는 방식이다.

TF에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재료연구소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TF에서는 '100대 핵심 전략품목 5년 내 공급 안정화'라는 정부 대책에 발맞춰 그동안 취약했던 소재·부품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일본의 경제 보복이 어떻게든 한국에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가 드러난 만큼 지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농수산물'로 확전될 수 있다고 보고 농약잔류허용 기준 통과 등 검역 강화 조치에도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광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지역 제조업체 대부분이 대기업 하청업체인 가운데 소재·부품 수입의 대부분을 원청인 대기업들이 하고 있어서 대기업의 대응 여부에 따라 피해 규모가 늘거나 줄어들 수 있을 것 같다"며 "좀 더 지켜보면서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차정준 기자 cc6311@metroseoul.co.kr

흰개미 들끓는 무안 가옥, 3년째 조치 無

목조문화재 천적, 2차피해 우려
흰개미 피해 문화재 36%만 방제

목조문화재 천적 '흰개미' 피해가 확인되고 있지만 국가민속문화재 167호 전남 무안 가옥 등은 3년이 지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비례대표)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흰개미피해 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흰개미 피해가 확인된 국가민속문화재 167호 무안 가옥의 경우 피해 확인 후 3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민간 협력 등을 통해 흰개미 서식과 부재별 곤충, 미생물 피해여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방제 대상 문화재로 보고가 돼도 이를 뒷받침하는 신속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올해 계획이 수립된 곳도 많았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흰개미 피해 문화재 64건 중 23건(36%)만이 방제 작업이 완료됐으며 42%(27건)는 방제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전남지역의 경우 국보 67호 구례 화엄사 각황전과 국보 383호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보물 394호 나주향교 대성전, 보물814호 구례 화엄사 대웅전, 보물 1311호 순천 선암사 대웅전, 보물 1807호 해남 대흥사 천불전, 국가민속문화재 163호 보성 이용우 고택, 국가민속문화재 167호 무안 유교리 고택, 국가민속문화재 251호 신안 김환기 고택 등 9곳이 올해 조사계획에 포함됐다.

김수민 의원은 "목조문화재를 해치는 흰개미는 다른 곳으로 옮겨가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피해가 확인되면 곧바로 퇴치 등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안(전남)=양수녕 기자

전남, 마리안느·마가렛 고향 티롤주와 교류

고흥 소록도서 40여년 봉사 인연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 교류

유럽을 순방 중인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오스트리아 티롤주 출신으로 고흥 소록도에서 한센인을 위해 40여 년을 봉사한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간호사의 노벨평화상 추천에 대해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또 티롤주와 신재생에너지와 관광산업 등 다양한 분야 교류를 위한 우호교류의향서를 체결했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도지사는 13일(현지 시각) 스트리아 티롤주 청사를 방문, 군터 플라터 주지사와 회담을 갖고 "전남도와 티롤 주가 우호교류의향서를 체결하게 된 것은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 두 분이 만들어준 인연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티롤주는 아름다운 알프스를 가지고 있어 동계올림픽을 두 번 개최할 만큼 관광산업이 발달한 지역이고, 전남은 아름다운 해변과 2200여개의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는 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어서 관광 여건은 서로 다르지만 교류를 통해 충분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며 "관광뿐 아니라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통해 상호 발전에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소록도에서 봉사활동을 펼친 마리안느(왼쪽)와 마가렛 간호사. /고흥군

군터 플라터 주지사는 "마리안느와 마가렛 노벨평화상 추천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개인적으로도 최근 에너지 산업 등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전남에 관심이 많았고, 앞으로 관광뿐 아니라 농축산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군터 플라터 주지사와 함께 인스부르크 요양원을 방문해 마리안느와 마가렛을 만났다.

두 간호사를 만난 자리에서 김 지사는 "많이 뵙고 싶었다"며 "일찍 와서 뵀어야 했는데 시간을 내지 못하다가, 이번 한국의 전통 명절인 추석 연휴를 맞아 꼭 뵈어야겠다는 일념으로 시간을 냈다"면서 최근 근황을 묻고 빠른 쾌유를 기원했다.

김 지사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마리안느와 마가렛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에 오스트리아 국민들도 동참해 줄 것을 부탁했다.

/무안=양수녕 기자 ysn63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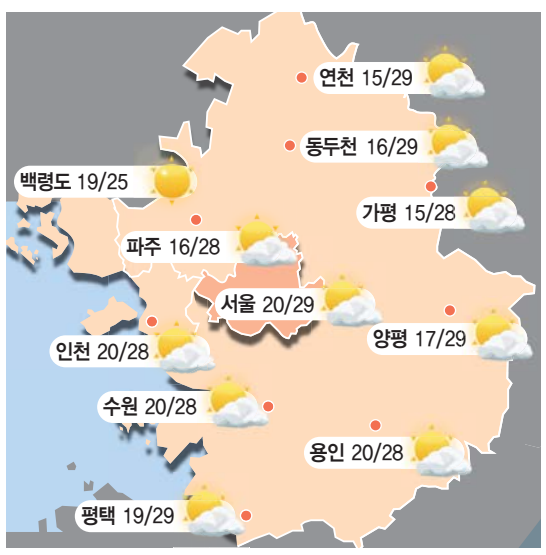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 06:14 | 해짐 / 18:40

9월 16일 (月)
음력 : 8월 18일

수도권 날씨
29~20℃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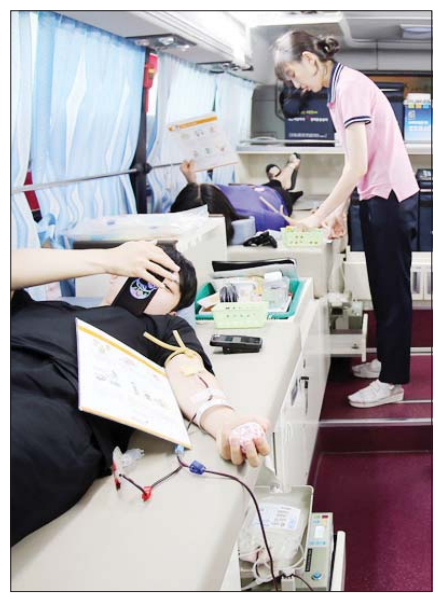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광주·전남 헌혈 ↓… 중장년 참여 절실

광주·전남지역 헌혈자 수가 최근 3년간 감소세를 보여 시·도민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가 요구된다. 15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역 헌혈자 수가 줄고 있다.

2017년 1월~8월 14만5149명(12월까지는 22만266명), 2018년 1~8월 13만7555명(20만6743명), 올해 1~8월 13만565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준 광주·전남 인구 대비 헌혈률도 6.3%(전국 평균 5.6%)에 그쳤다. 지난 13일 기준 혈액 보유량은 O형 2.7일분, A형 3.3일분, B형 5일분, AB형 3.7일분이다. 적정 혈액 보유량은 일평균 5일분 이상이다. 농축 혈소판 보유 현황도 1.6일분에 그쳤다.

혈액원은 '헌혈 감소 배경'으로 저출산·고령화, 젊은 층에 치우친 헌혈, 헌혈에 대한 여러 편견, 헌혈 부적격 사유 증가 등을 꼽았다. 만 16~69세면 헌혈이 가능하지만, 국내 헌혈자 중 70%가량이 10~20대에 치중돼 있다. 늘고 있는 중장년층의 헌혈 참여가 저조하며, 저출산 영향으로 학생·군인 등 청년층 헌혈자도 줄고 있다는 게 혈액원의 설명이다. 이에 젊은 층에 치우쳐 있는 헌혈 인구를 다양화시키고, 중장년층의 헌혈 참여가 절실하다. /광주=차정준 기자


광주 동구는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혈액사업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 /광주 동구